

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 '20연 敗퍼스'

〈패〉



페퍼스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을 썼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스측은 행 AI페퍼스는

AI페퍼스...GS에 2-3 역전패 여자 단일 시즌 최다 연패 '타이'

는 지난 6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2-3(25-21 25-21 20-25 22-25 7-15)으로 지며 20연패에 빠졌다.

증을 호소하며 경기장을 벗어났던 야스민은 이날 출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페퍼스는 정관장(당시 KGC인삼공사)이 2012-2013 시즌에 쓴 20연패라는 여자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과 나란히 서게 됐다.

박정아가 블로킹 득점 5점을 포함해 26득점을 올려 분전했고, 이한비가 14득점을 올렸다. 공격성 공률 42.31%를 기록하며 13득점을 올린 필립스의 활약도 돋보였다.

자칫하면 여자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신기록'을 쓰게 될 처지에 놓인 페퍼스다.

조 트린지 감독은 이날 경기에 대해 "야스민 없이 플레이를 함에 따라서 선수들이 한 단계 성장한 것 같다. 선수들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화성종합철강체육관에서 열리는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진다면 페퍼스는 여자부 최초로 21연패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된다.

"가능성"을 보여준 페퍼스지만 다가올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건 승리뿐이다. 남은 4경기 안에 승리라는 '반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남녀부 통합 단일 시즌 최다 연패 타이'를 기록하게 되고, 여기에 이어지는 2경기마저 진다면 '남녀부 통합 최다 연패'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도달하게 된다.

페퍼스는 GS칼텍스전에서 1:2세트를 따냈지만 3:4세트에서 세트 점수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 경기는 5세트까지 이어졌지만 페퍼스는 끝내 반전에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남녀부 통합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은 한국전력(당시 KEPCO45, KEPCO)이 2008-2009 시즌과 2012-2013 시즌에 각각 기록한 25연패, '남녀부 통합 최다 연패' 기록은 한국전력(당시



AI페퍼스가 6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후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KEPCO)이 2007-2008 시즌과 2008-2009 시즌에 걸쳐 기록한 27연패다.

올 시즌 페퍼스에게는 9번의 경기가 남아있다.

프로배구 역사상 최악의 기록을 쓸 위험에 처한 페퍼스의 남은 시즌에 관심이 쏠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씨름·수영·쇼트트랙...설 명절 스포츠와 함께

아시안컵 국가대표 '태극 전사' 들 소속팀 복귀...주말전 기대

농구·배구 등 순위 경쟁...황선우·이상혁·박지원 승전보 관심

올해도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풍성한 스포츠 이벤트와 함께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가 예정돼 있다.

비록 '태극 전사' 들이 64년 만에 도전한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은 물거품이 됐지만 그래도 국내·외에서 다양한 명승부들이 설 연휴에 펼쳐진다.

김민재는 요르단과 4강에서 경고 누적으로 뛰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이강인보다 주말 소속팀 경기에 곧바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유럽파'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복귀해 곧바로 이번 주말 경기부터 펼치는 미지수다. 개인 컨디션과 소속팀 사정에 따라 주말 경기 출전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설에 빼놓을 수 없는 민속씨름은 7일부터 12일까지 충남 태안 종합체육관에서 위더스체육 태안설날 장사대회를 개최한다.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은 아시안컵 결승과 같은 시간인 11일 0시에 브라이트 앤드 호브 엘비언과 리그 경기를 치르고,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는 리그 1위 레버쿠젠을 상대로 11일 오전 2시 30분에 리그 1, 2위 맞대결을 벌인다.

7일 여자부 예선을 시작으로 8일 여자 개인전, 9일 태백장사, 10일 금강장사, 11일 한라장사, 12일 백두장사 결정전이 차례로 열린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11일 오전 5시 릴과

태백급 노범수(울주군청)와 금강급 최정만, 백두급 김민재(이상 영암군민속씨름단)는 설날 장사 2연패에 도전한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11일 오전 5시 릴과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등 겨울철 실내스포츠 순위 싸움은 연휴에도 계속된다.

모두 설 연휴에 1위와 2위 팀의 맞대결이 팬들을 기다린다.

여자농구는 1위 청주 KB와 2위 아산 우리은행이 11일 오후 6시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맞붙는다.

7일과 8일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르면 11일 KB가 우리은행을 꺾을 경우 곧바로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할 수도 있다.

여자배구 역시 1위 현대건설과 2위 흥국생명 12일 오후 4시 수원체육관에서 만난다.

7일 현재 현대건설(승점 62·20승 6패)과 흥국생명(승점 56·20승 6패)의 승점 차는 '6'이다.

현대건설이 흥국생명과 5라운드 맞대결에서 승리하면 선두를 굳힐 수 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투수 랜디 존슨의 딸 윌로우 존슨(등투명 윌로우)을 영입해 날개 공격을 강화한 흥국생명은 맞대결 승리로 선두 싸움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설 연휴를 맞이한다.

여자 핸드볼 1위 SK 슈가글라이더즈와 2위 경남개발공사는 연휴 첫날인 9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SK핸드볼 경기장에서 격돌한다.

SK 강경민, 경남개발공사 이연경 등 국가대표 에이스들의 화려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남자프로농구에서는 설 연휴에 '쌍둥이 형제' 감독 맞대결도 예정돼있다.

창원 LG 조상현 감독과 울산 현대모비스 조동현 감독은 명절 가족 모임에서 만나는 대신 12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맞붙어 한 명은 웃고, 한 명은 울어야 한다.

프로당구(PBA) 시즌 8번째 투어 대회인 웰컴저축은행 웰빙 PBA 챔피언십은 설날 연휴에 맞춰 모든 일정을 마친다.

설날 당일인 10일에는 남자부 PBA 16강전과 여자부 LPBA 4강전이 벌어진다.

11일 오후 우승 상금 3000만원의 여자부 LPBA 결승전, 12일 오후에는 우승 상금 1억원의 남자부 PBA 결승전으로 대회를 마감한다.

설 연휴에 외국에서 날아올 승전보도 기대된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김우민(강원도청)이 11일 오후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에 나가고, 8위 안에 들면 12일 오전 결승에 출전한다. 또 황선우(강원도청)는 12일 오후

남자 자유형 200m 예선을 시작한다.

'스마일 점퍼' 이상혁(용인시청)은 10일 오전 체코에서 열리는 실내 높이뛰기 대회를 통해 올해 첫 실적을 치른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11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막을 올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6차 대회까지 성적으로 매기는 남녀 종합 1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심이 쏠린다. 남자부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박지원은 4차 대회까지 랭킹 포인트 681점을 얻어 캐나다의 스티븐 뒤부아(683점)를 단 2점 차로 쫓고 있다.

여자부에선 김길리(성남시청)가 랭킹 포인트 865점을 쌓아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인 미국의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즈월드(805점)와는 60점 차이다.

골프 팬들의 관심은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WM 피닉스오픈(총상금 880만 달러)에 쏠린다.

세계 랭킹 1위 스킨제퍼(미국)를 비롯해 임성재, 안병훈, 김주형, 김시우, 김성현, 이경훈 등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세계랭킹 1위 세플러, 피닉스오픈 3연패 도전

PGA 투어 8일 개막 임성재·안병훈 등 출격

'골프 해방구'로 불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WM 피닉스오픈(총상금 880만 달러)이 8일(현지시간) 막을 올린다.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TPC 스코츠데일(파71·7261야드)에서 나흘간 이어지는 피닉스오픈은 경기 도중 음주와 응원, 야유 등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유명한 대회다.

올해 대회에선 세계랭킹 1위 스킨제퍼(미국·사진)의 3연패 도전이 특히 관심을 끈다.

세플러는 2022년과 지난해 연이어 이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바 있다. 2021년에도 공동 7위에 오르는 등 강한 면모를 보여 왔다.

지난해 3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한 뒤엔 트로피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는 그는 시즌 첫 승과 피닉스오픈 3연패를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다.

PGA 투어에서 단일 대회 3연패는 2009~2011년 존디에 클래식의 스티브 스트리커(미국) 이후 10년 넘게 나오지 않고 있다.

세플러는 이번 시즌 대회인 지난해 더센트리 공동 5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17위, 지난해 AT&T 페블비치 프로암 공동 6위 등 좋은 흐름 속에 대기록 도전에 나선다.

직전 대회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을 제패한 윌

덤 클라크(미국)는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AT&T 페블비치 프로암이 악천후에 대회가 54홀로 축소되며 3라운드까지 성적으로 행운 섞인 우승을 달성한 그는 이번 대회 출전하는 선수 중 세계 랭킹(6위)은 세플러 다음으로 높고, 페덱스컵 랭킹은 현재 3위로 출전자 중 가장 높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안병훈, 김주형, 김시우, 김성현, 이경훈이 출전한다.

임성재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공동 6위에 올랐고, 안병훈은 2017년 대회 때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 마지막 날 단독 6위로 밀려 PGA 투어 첫 승 기회를 놓친 기억이 있다.

피닉스오픈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적은 아직 없고, 2021년 이경훈의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다.

PGA 투어 홈페이지에 실린 이번 대회 '파워 랭킹'에선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1위로 꼽혔다.

PGA 투어 통산 15승의 토머스는 피닉스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적은 없으나 지난해 4위, 2022년 공동 8위, 2020년 공동 3위 등 꾸준히 좋은 결과를 남겨 우승 후보로 거론될 만하다.

디펜딩 챔피언 세플러는 파워 랭킹에선 2위에 올랐고, 안병훈 6위, 임성재 8위, 클라크는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주 멕시코에서 2024시즌을 시작한 LIV 골프 리그는 8~10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트리클럽(파70)에서 2차 대회(총상금 2천만 달러)를 연다.

1차 대회에서 4차 연장 끝에 우승한 호아킨 니만(칠레)이 연승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LIV 데뷔전을 개인전 공동 3위, 단체전 우승으로 마친 세계랭킹 3위 윤 람(스페인)이 이번엔 개인전 첫 트로피를 거머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세보청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